

13 연천군 푸르미어린이집 계란판 어디까지 해 봤니?



놀이반 소개

정직반은 4세 유아 14명으로 구성된 반으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협력 속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평소 환경을 주제로 한 활동에 관심이 많고, 우유곽이나 폐품을 가져와 놀이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텃밭 가꾸기, 화분 돌보기, 폐품을 활용한 만들기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ESG 문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로 하여금 “버려지는 물건에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직반의 ‘달걀판 놀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익숙했던 물건 하나가 아이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세계로 피어나며, 놀이와 배움이 하나로 이어진 ESG 실천의 장이 되었습니다.

놀이의 시작

• 놀이의 시작-달걀판에서 피어난 호기심

어느 날 한 아이가 가정에서 가져온 달걀판을 들고 와 “선생님, 이것도 재활용품이래요.” “이걸로 뭐 만들어볼까요?”라고 말하며 교실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평소 다양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놀던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달걀판을 바라보았다. 익숙하지만 독특한 형태를 가진 달걀판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손끝으로 만져보며 “여기 집이에요.” “이건 방이에요.”라며 작은 인형과 놀잇감을 넣어보기도 했다. 그날 달걀판은 단 두 개뿐이었지만, 아이들의 관심은 교실 가득 퍼졌다. “우리도 하고 싶어요!” “같이 해요!”라는 말이 이어졌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 속에서 첫 번째 놀이, ‘달걀판 탁구공 던지기 놀이’가 탄생했다.



놀이의 과정

• 놀이의 전개-공 던지기과 수 놀이로의 확장

교사는 모든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탁구공을 제공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한 사람씩 차례로 다섯 개씩 던져보기”로 약속을 정하고 놀이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달걀판의 구멍을 향해 공을 던지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이 빗나가면 “안 들어갔어요...”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사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번엔 더 잘 들어갈 거야.”라는 긍정적인 언어로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반복적으로 시도하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드디어 달걀판 구멍 속에 공을 넣자 “들어갔다!” 하고 기뻐하며 웃음이 번졌다. 이 순간을 함께 지켜보던 아이들도 손뼉을 치며 “나도 해볼래!”라고 외쳤고, 교실 안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이후 교사가 주사위를 함께 제공하자 아이들은 한층 더 흥미를 보였다. 서로 상의하며 두 팀으로 나뉘어 규칙을 만들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공을 넣기!” “먼저 계란판을 다 채운 팀이 이기는 거야!” 아이들은 순서를 지키며 차례로 주사위를 던졌고 공을 넣을 때마다 친구들이 함께 세어 주며 즐거워했다. “3이 나왔으니까 세 개!” “이제 네 차례야!” 놀이가 이어질수록 아이들은 수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규칙을 지키며 협동하는 법을 배워갔다. 승패보다 함께 웃고 응원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질서·협력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 놀이의 몰입-쌓고 무너뜨리며 배우는 협력

다음 날, 교사는 전날 놀이에 높은 흥미를 보였던 아이들을 위해 충분한 수의 달걀판을 준비해 두었다. 아이들은 “또 하고 싶어요!”라며 달려와 자연스럽게 놀이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달걀판을 바닥에 나란히 두는 대신 겹쳐 쌓거나 세워 올리며 새로운 구조물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아이들은 손끝의 힘을 조절하며 달걀판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지만 가벼운 재질 탓에 탑은 금세 무너지곤 했다. “아... 또 넘어졌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실패에 속상해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자 교사는 즉시 개입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며 아이들의 감정을 살폈다. 잠시 후 교사는 부드럽게 다가와 “자꾸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고 “우리 같이 해볼까?”라며 서로를 도우며 다시 쌓기 시작했다. 한 명이 밑을 받치고, 다른 친구가 위에 올리며 손끝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교사의 긍정적인 언어 지원과 공감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놀이 속으로 이끌어주는 따뜻한 힘이 되었다. 그 이후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짐과 재도전을 반복하며 놀이에 더욱 몰입했다. 탑이 점점 높아질수록 “우와, 안 넘어졌어요!” “우리 진짜 잘했어요!” 하는 환한 웃음소리가 교실 가득 울려 퍼졌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협력의 즐거움과 성취의 기쁨을 느꼈고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 놀이의 확장-협동 쌓기 게임과 정리의 즐거움

쌓기 놀이가 활발히 이어지자 교사는 놀이를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조별 협동 쌓기 게임을 제안하였다. 두 명씩 짝을 이루어 10초 안에 차례대로 달걀판을 쌓는 방식이었는데, 아이들은 팀을 정하고 “우리가 먼저 해볼게!”, “우리 팀 최고야!”라며 의욕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이건 이렇게 놓자.” “그건 내가 올릴게.”라며 역할을 조율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손끝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더욱 높아졌다. 탑이 점점 높아지자 “조심, 이제 하나만 더!”라는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탑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우리가 해냈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협력으로 이루어낸 성취의 기쁨이 가득했다. 놀이가 끝난 뒤에는 완성된 달걀판을 하나씩 겹쳐 정리하며 “내가 밑을 잡을게.” “같이 들어보자.” “이건 네가 위에 올려줘.”라며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다.

무거운 구조물을 함께 들어 제자리에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까지 서로 도우며 마무리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협동의 즐거움과 공동의 성취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정리 활동을 넘어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배움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 놀이의 확장-재활용 꽃으로 피어난 창의 세계

놀이가 이어지던 중, 일부 달걀판이 찢어지고 부서지자 아이들은 “망가졌어요.”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사는 그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고 말하며 달걀판을 한 조각 잘라 보여주며 “이건 어때?”라고 묻자 한 아이가 “꽃 모양이에요!”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정말 그렇네, 우리 꽃으로 만들어볼까?”라고 제안했다. 아이들은 “좋아요!”라며 손뼉을 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사는 가위를 이용해 달걀판을 꽃잎 모양으로 오려주었고 아이들은 스스로 물감을 짜고 붓을 들어 달걀판에 자유롭게 색을 입혔다. 붓질을 하며 색이 섞이고 번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구경하고 감탄했다. “너는 파란색이 예쁘다.” “내 꽃은 하트처럼 됐어!” 아이들의 대화 속에는 창의적인 표현과 따뜻한 격려가 오갔다. 색칠을 마친 꽃은 우유곽을 재활용해 만든 작은 화분에 심어졌다. 아이들은 “내 꽃은 여기!”, “우리 교실이 꽃밭이에요!”라며 하나씩 조심스레 꽃을 꽂았다. 완성된 작품이 교실 한켠에 놓이자 공간은 마치 봄 정원처럼 밝고 화사해졌다.

망가진 재료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재활용의 진정한 의미와 창의적 표현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친구의 작품을 바라보며 “예쁘다.” “너 잘했어.”라고 칭찬을 나누며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성취를 함께 기뻐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환경을 아끼고, 함께 만든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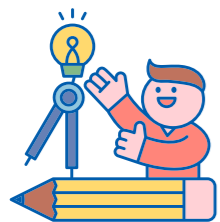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교사는 놀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달걀판, 탁구공, 주사위, 색종이, 물감, 붓, 우유곽 등 다양한 재활용 재료를 확보하였다. 놀이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재료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배치하고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놀이가 전개되는 동안 아이들의 관찰 기록을 사진과 메모로 남기며 재료의 양과 형태가 놀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심히 살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지원은 아이들이 탐색에서 몰입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토대가 되었다.

인적 자원

교사는 놀이의 모든 순간을 “지켜봄과 기다림”으로 접근하였다. 즉각적인 해결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렸고 필요할 때에는 공감과 격려의 말로 마음을 다독였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이 짧은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다시 시도할 용기를 주었다. 또한 유아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자.” “함께하면 더 멋진 게 될 거야.”와 같은 언어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놀이가 지속되는 동안 교사는 기록자이자 동반자로서 아이들의 생각과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한편,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부모가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ESG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교역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지원은 놀이의 외형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협력하며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이전의 놀이는 교사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하려 노력했지만, 실제 놀이의 흐름은 교사가 정한 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놀이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교사는 즉시 개입하여 해결하려 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의 자율적인 탐색과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놀이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설팅 후

컨설팅 이후 놀이는 한층 더 유연하고 자발적인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사의 계획보다 아이들의 호기심이 놀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고 교사는 그 흐름을 세심히 관찰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했습니다. 달걀판 놀이는 단순한 ‘공 던지기’에서 시작해 ‘쌓기’, ‘협동’, ‘꽃 만들기’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놀이 방식을 제안하며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놀이가 더 이상 정해진 결과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함께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놀이의 변화

교사의 변화

영유아의 변화

당시의 저는 놀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아가 실수하거나 놀이가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면 불안함을 느꼈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바라보기보다 활동이 매끄럽게 진행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흐름이 잠시 멈추거나 혼란스러워질 때 기다려주는 대신 방향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교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지원’하기보다 ‘관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 이후 저는 ‘지도하는 교사’에서 ‘함께 머무는 교사’로 변화했습니다. 놀이가 어지럽게 흘러가더라도, 그 안에 배움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실패하거나 다투는 순간에도 즉시 개입하기보다 마음을 공감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놀이의 의미를 나누며 부모가 가정에서도 아이의 탐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교사는 ‘통제자’가 아닌 ‘신뢰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교사의 주도성이 강했던 만큼, 아이들은 교사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탐이 무너지거나 친구와의 의견이 다를 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놀이 속에서 친구와 대화하거나 함께 해결하는 경험이 제한되었고, 결과적으로 놀이가 가진 ‘자율성’과 ‘탐구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탐이 무너지면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친구와 함께 방법을 고민하며 협동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놀이 과정에서 “같이 하자.” 같은 긍정적인 대화가 늘어났으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 재료를 새로운 사물로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 사고와 자기 표현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놀이의 ‘참여자’를 넘어놀이를 ‘만드는 주체’로 성장하였습니다.

14 연천군 한아름어린이집 바스락! 알록달록! 습자지 놀이터



놀이반 소개

만1세의 칭찬해반은 영아6명(여아3명, 남아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은 아직 24개월 미만의 영아들이다. 또래보다 나이가 어린 영아들이 많아 낮가림이 나타나거나 개별놀이에 익숙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래와 함께 어울리기 보다는 교사와 일대일 상호작용을 선호하거나 혼자 탐색하는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놀이 선호도에서는 감각적이고 단순 반복이 가능한 놀이에 흥미를 보이며, 특히 종이, 블록, 소리 나는 교구처럼 직접 만지고 흔들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말과 표현은 아직 미숙하여 언어로 의사소통하기보다는 몸짓,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웅얼이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발달 측면에서는 소근육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쥐기, 구기기, 끼적이기와 같은 손동작을 즐기며, 대근육 발달 또한 걷기, 뛰기, 오르내리기와 같은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놀이를 반복하며, 옆에서 친구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모방하려는 시도가 자주 보이고 있다.

놀이의 시작

• 놀이가 시작하게 된 배경

영아들은 놀이 활동 중에서 놀이재료를 손으로 구기거나 찢거나 뿌리며 즐거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교사는 얇고 가볍게 찢어지는 습자지를 놀이 자료로 제공하였다. 습자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어 영아들이 감각을 자극 받으며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재료이다.

• 영유아가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알록달록한 습자지 재료를 보고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으며 탐색하였지만 아직 만 1세의 소근육 힘 조절이 미숙함에 찢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교사가 습자지 끝을 살짝 찢어주면서 영아들이 찢기를 시작하자 손으로 찢을 때마다 들려오는 바스락 소리와 변하는 종이의 모양은 영아들에게 낯설어 하면서도 조금씩 친숙해져가는 모습이다. 바구니와 종이컵, 파라슈트를 익숙한 놀잇감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찢은 습자지를 넣어 담거나 흔들고 뿌려보기를 시도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습자지 특징을 살려 습자지 색깔 물통 만들기, 실외 습자지 색깔 텐트 만들기로 색이 번지는 과정을 관찰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각, 청각 촉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기에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에 몰입하게 되었다.

놀이의 과정

• 습자지를 탐색해요

교실에 알록달록한 습자지를 충분히 제공하였더니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며 습자지를 만져보고 구겨보았다. 어떤 영아는 습자지를 찢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교사가 습자지의 끝을 살짝 찢어주자 영아가 스스로 찢어내며 성취감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바스락 거리는 소리와 습자지의 움직임에도 흥미를 보였다. 영아들은 습자지를 구기거나 찢으며 촉감과 소리를 탐색하고, 공처럼 문쳐 던지거나 머리 위에 올려보며 놀이를 확장하였다. 놀이가 이어지던 중, 일부 영아들이 습자지를 바구니나 그릇에 담은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에는 장바구니와 종이컵을 제공하여 영아들이 습자지를 담고 꺼내는 놀이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 찢은 습자지를 장바구니, 종이컵에 넣어보아요

이후 놀이에서 영아들은 찢은 습자지를 바구니와 종이컵에 넣는 활동에 흥미를 보였다. 작은 손으로 습자지를 집어 넣으며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한 영아가 종이컵에 습자지 넣기가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여 교사가 습자지를 구겨서 넣는 모습을 보이자, 교사를 모방하여 반복해서 넣고 빼며 즐거워하였다. 어떤 영아는 바구니를 가득 채운 뒤 흔들어보았고, 또 다른 영아는 종이컵을 머리에 올리며 놀이를 변형하기도 했다. 교사는 영아들의 흥미를 반영해 바구니와 종이컵을 충분히 제공하였고, 영아들이 쉽게 놀이할 수 있도록 습자지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두었다. 놀이 중 영아들은 손가락과 손을 사용해 습자지를 집어 넣으며 소근육 발달을 경험했고, 또래와 함께 주고받으며 사회적 상호작용도 이루어졌다. 놀이가 진행되던 중, 일부 영아들이 습자지를 꺼내 뿌리거나 잡아당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다음 시간에는 교실 벽에 시트지를 붙이고 끈을 매달아 습자지를 붙이고 당기는 활동으로 제공해주어야겠다.



흥미를 갖으며 찢어진 습자지를 들고 벽면에 붙여보았다. 한 영아가 시트지를 향해 습자지를 뿌리며 움직임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영아들도 습자지를 모아 시트지에 힘껏 뿌리며 벽면에 붙이며 놀이가 지속되었다. 영아들이 습자지를 뿌리는 것에 흥미를 보여 파라슈트를 추가로 제공하여 파라슈트 위에 습자지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자, 영아들도 습자지를 모아 파라슈트 위에 습자지를 올려 놓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교사가 파라슈트를 펼럭이자, 공중으로 뿌려지는 습자지에 환호하며 즐거워 하였다. 교사와 함께 영아들이 스스로 파라슈트 위에 습자지를 올리고 파라슈트를 잡으며 다함께 펼럭이며 공중에 흩날리며 신체를 크게 움직이는 놀이로 확장되었다. 놀이 중 일부 영아들은 습자지의 색이 손에 물들어 있는 모습에 흥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음에는 습자지와 물통을 제공하여 색깔 습자지를 물에 담그고, 색이 번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색물병 만들기 활동으로 놀이를 지원해주어야겠다.



• 습자지 색깔 물병

영아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다양한 색깔의 습자지와 빈 물병 여러개를 준비하니, 영아들이 투명한 물병과 다양한 색깔의 습자지를 탐색하였다. 교사가 습자지를 선택해 투명한 물병 구멍에 넣어 보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아들이 습자지를 빈 물병안에 습자지를 넣어보려고 하였다. 작은 구멍에 넣기가 힘든 영아가 교사에게 물병을 건네는 모습이 보여 교사와 함께 손가락을 이용해 습자지를 넣어보았다. 한 영아가 습자지를 넣은 물병에 뚜껑을 닫고는 흔들어보며 안에 든 습자지를 살펴보았다. 교사가 “습자지가 든 물병을 흔들어 보았구나. 이번에 습자지가 든 물병에 물을 넣어도 흔들어볼까?”라고 말하자, 영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교사를 바라보았다. 교사가 큰 물통에 물을 물병 안에 물을 넣는 모습을 보였다. 습자지가 든 물병 안에 물이 담기자 습자지에 색이 스며들며 번져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아들이 “우아~”라고 감탄사를 표현하며 놀라움과 호기심을 표현하였다. 어떤 영아는 물병을 흔들며 색이 퍼지는 변화를 집중해서 관찰했고, 또 다른 영아는 완성된 색 물병을 굴리며 소리와 움직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색물병 놀이를 하면서 물에 습자지 색이 번지는 모습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들을 위해 여름 계절과 연결하여 실외에서 천 텐트를 습자지와 물로 물들이는 활동을 제공하여, 색이 번지고 변화하는 과정을 몸으로 경험하며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겠다.



• 습자지 색깔 텐트

저번 평가를 반영하여 야외 데크로 이동하여 설치된 하얀 천 텐트와 물과 다양한 색의 습자지를 제공하자, 영아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각 원트레이 안에 물에 담긴 습자지를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하며 영아들은 “빨갳다!”, “파랳다!”라고 말하며 즐거워하였다. 교사가 물에 젖은 습자지를 텐트에 붙이며 색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이자, 영아가 원트레이에 습자지를 텐트에 붙이며 흘러내리는 습자지 물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텐트 위에 습자지를 물이 담긴 약통을 눌러 물이 나오면서 습자지 물이 텐트에 물들여지는 모습을 보이자, 영아들이 물이 든 약통을 하나씩 들고는 놀리며 물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텐트에 습자지를 맞추기가 힘든 영아가 있어 교사가 함께 물병을 눌러 방향 잡아주기를 도와주자, 물이 습자지에 맞추며 습자지 물이 똑똑 떨어지자, 미소를 보이며 약통에 물뿌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가 물이 담긴 통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영아들이 약병을 눌러 물을 담으며 습자지 물로 염색하는 놀이에 집중하였다. 영아들이 약통을 눌러 물을 뿌리자 습자지가 젖으며 물이 떨어지는 모습에 흥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음에는 전지에 습자지를 붙여, 마치 습자지 비가 내리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해야겠다.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야외 테크에 하얀 텐트를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색깔의 습자지와 물통, 분무기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영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과 여분의 수건, 모자 등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했다. 놀이 중 영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부분에는 즉시 놀이자료를 지원하였으며, 영아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언어로 읽어주며 상호작용을 확장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놀이시간을 넉넉히 보장하였다

인적 자원

놀이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교사, 연장교사, 원장님 등 인적 자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영아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폈다. 교사는 영아 곁에서 관찰과 지원을 이어가며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였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div data-bbox="1679 401 1844 571"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놀이의 변화 </div>	<p>놀이가 교사가 제공한 교구나 활동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영유아가 단순 탐색이나 모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놀이가 일시적으로 이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잦아 확장되지 못했고, 또래 간 상호작용보다는 개인적인 탐색이 중심이 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p>	<p>놀이가 영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확장되기 시작했다. 교사가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재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놀이가 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역할놀이, 미술, 신체놀이 등으로 연결되었다. 영아들 또한 놀이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변형해가며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p>
<div data-bbox="1679 890 1844 1060"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교사의 변화 </div>	<p>교사는 습자지를 제시했을 때 영아들이 거부하거나 만지지 않으려 하면 “다른 놀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하며 놀이의 지속성보다는 즉각적인 참여를 우선으로 여겼다. 교사 또한 활동을 계획하고 안내하는 중심적인 역할에 머물렀으며, 영아가 놀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교사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p>	<p>교사는 영아들의 놀이 흐름을 관찰하며 필요한 재료를 적시에 제공하거나 안전을 지지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고, “이 색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뿌리면 어디까지 날아갈까?”와 같은 질문으로 탐색을 확장하도록 도왔다. 영아들은 낯설었던 재료에 친숙해지며 자신만의 놀이 방법을 찾아내고, 친구와 함께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신체적·감각적·탐구적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부모 또한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과정을 즐기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며,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놀이의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비구조화된 재료를 활용한 놀이가 환경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가정에서도 놀이를 확장해보려는 의지를 나타냈다.</p>
<div data-bbox="1679 1431 1844 1601"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영유아의 변화 </div>	<p>영아는 새로운 놀이 상황이나 재료 앞에서 다소 낯설어하며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놀이 상황에서도 제공된 자료를 단순히 만지거나 탐색하기에 그치는 모습이 보였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이었으며, 갈등이 생길 경우 쉽게 놀이에 이탈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보다는 울거나 토라지는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았다.</p>	<p>습자지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자 낯설게 느껴졌던 놀이와 자료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낯설었던 놀이가 반복적 경험을 통해 친숙해지자 새로운 시도를 즐기고 자신만의 놀이 방법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놀이 중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교사의 도움을 청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놀이를 통해 새로운 시도와 탐구를 즐기며 성취감을 경험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였다.</p>

15 의정부시 고산다운어린이집 사각사각 종이로 똑딱똑딱 상자로!



놀이반 소개

• 놀이의 주인공

우리는 1세 별마루반이에요! 여자친구 2명, 남자친구 3명이 주인공입니다! 단아는 종이를 찢-익 찢어보았고, 이랑이는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펄럭이며, 연우는 종이컵, 상자 쌓고 무너뜨리기! 리윤이는 종이컵, 종이그릇으로 친구들과 함께 소꿉놀이, 태이는 상자 배에 친구를 태우며 놀이를 이어갔답니다. 이렇게 다섯 친구는 몸으로 느끼고 움직이며 놀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놀이의 시작

• 놀이가 시작하게 된 배경 (영유아들이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비닐을 찢기 놀이를 하다가 잘 찢어지지 않아서 종이를 제공해주었어요. 손에 쥐어보았더니 구겨지네? 두 손으로 잡고 당겼더니 찢어지네? 찢어질 땐 찢-익, 흔들면 펄럭펄럭 소리가 나는구나! 종이 찢는 것에 재미를 느낀 별마루반의 종이 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색지를 찢어요

놀이의 과정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 지원

<물리적 지원> 찢어진 종이를 접착 시트지에 붙여요

종이 조각이 많이 생겨 어떻게 놀이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접착 시트지를 바닥에 붙여 주었더니 접착 시트지를 만지면서 손, 옷이 붙는 다는 것을 알았다. 영아가 종이를 접착 시트지에 붙이자 다른 영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였고, 종이 조각을 붙인 뒤 그 위를 걸어보는 영아가 있어 종이 길을 별마루반 교실 문 앞에 붙여주었더니 등·하원, 일과 시간 중 걸어보거나, 점프하는 등의 놀이로 전개되었다.



시트지를 만져보니 끈적끈적하네



종이 길 위로 걸어봐야지~



우리가 찢은 종이 조각을 시트지에 붙여볼까?

종이 조각을 치워요(영아주도)

종이조각이 책상, 바닥에 있는 걸 본 영아가 손으로 종이조각을 밀어 떨어뜨리거나 빗자루, 쓰레받기를 이용해 치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교사는 영아의 모습을 “손으로 밀었더니 책 밑으로 떨어졌네”, “종이조각을 쓸었구나~, 바구니에 담아볼까?, 바닥이 깨끗해졌네~” 등의 언어적 지원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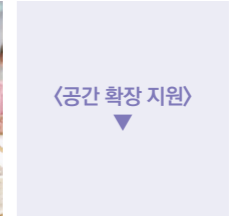
책상 위에 종이 조각이 있네? 손으로 쓱 밀었더니 책상 밑으로 떨어진다~



쓰레받기랑 빗자루를 가져와서 쓸어볼까? 쓰레받기에 있는 종이 조각은 바구니에 넣어봐야지~ 친구랑 같이 하니깐 더 재밌다~

색깔이 다른 종이에 끼적이기

크라프트지는 끼적일 때, 밟을 때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네? 검은 종이에 스티커도 붙여줘야지~ 검은 종이에 하얀색이 잘 보이는구나! 하얀 종이에 하얀 색이 안 보이네?



<공간 확장 지원>

테라스에서 끼적이기

바닥에도, 유리창에도 종이가 있네? 바닥에 있는 종이에 끼적기기를 했더니 울퉁불퉁해! 종이에 앉아서도 끼적여 봐야지~



종이에 끼적여야지~



종이 비행기를 숨~ 그런데 교실 바닥에 놀이감이 많네?



넓은 테라스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자~



두 팔을 벌려서 비행기처럼 움직여 볼까?

종이에 끼적거리거나 스티커를 붙이며 자연스럽게 종이의 질감과, 색, 소리에 관심을 가졌다. 까슬까슬한 느낌, 다른 색이 보이네? 등 언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자발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끼적거리에 대한 흥미가 지속적인 것을 알고 공간을 테라스로 확장해 주었다. 테라스에서 하는 종이 놀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 친숙한 놀이에 대한 고민을 하며 종이비행기 놀이를 하였고 정적인 활동에서 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공간활용과 동작을 유도하였다.

① 질감이 다양한 종이 놀이 한지놀이

〈인적 지원〉
돌돌 말은 한지를 길게 묶어 주었어요.



두 손으로 잡고 번쩍 흔들었더니 펠릭펠릭~ 소리가 나네?



바닥에 한지가 깔려있네? 한지 위에서 앉아서 소꿉 놀이를 해보자~



구겨보고, 돌돌 말아야지~



돌돌 말은 한지를 잡아당겨보자~

② 늘어나는 종이놀이

〈물리적 지원〉
바닥에 붙여주거나 기둥에 붙여주고, 공을 지원해 주었어요.



종이를 잡고 당겼더니 쭈우우우욱 늘어나네~



늘어난 종이 위로 걸어보자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



종이 밑으로 지나 가자~ 종이 위, 아래로 공을 넘겨보자~

③ 신문지놀이

〈물리적 지원〉
신문지에 물을 뿌려주기 위해 감각매트를 제공해주었어요.



손으로 쳐보니 소리가 나네?



신문지 밑으로 까꿍!



신문지를 찢어보자~

〈물리적 지원〉
영아의 수준에 따라 물약통, 분무기에 물을 담아 제공. 분무기는 사용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내가 뭉친 신문지를 찾아볼까? 신문지가 말랐네?



신문지를 뭉쳐보자!



'물'에 젖은 신문지를 밟았더니 축축하네?

④ 테라스에서 끼적이기

〈물리적 지원〉
투명시트지에 색깔이 보이지 않아 흰 종이로 바꾸어주었어요.



손으로 분무기를 잡고 눌렀더니 물이 나와~ 칙칙~ 소리가 나네?



습자지에 물을 뿌렸더니 바닥에 물이 생겼다~



빨간색, 노란색 물이 주르르 흐르네~ 비가 내리고 있어!

영아들의 감각적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두께와 질감의 종이를 제공하였더니 종이를 만지고 찢고 구기며 소리, 감촉, 움직임에 주목하는 모습에서 놀이가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더운 날씨를 고려해 물을 추가하여 놀이의 자극을 확장하고자 시도하였고 놀이에 직접 참여하며 반복되는 탐색을 지지하거나, 놀이가 이어지도록 관찰하며 기다리는 역할을 하였다.

① 종이그릇으로 놀이하기(영아주도)



종이컵을 하나씩 꺼내서 바닥에 놔야지~



종이컵 모빌을 잡고 흔들었더니 소리가 나네?



종이컵, 종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친구랑 놀아야지~ 짬!



종이컵을 꺼내서 겹쳐봐야지~



종이 그릇에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야지~

② 종이봉투랑 달걀판으로 놀이하기(영아주도)

〈환경적 지원〉

영아들이 끼적이기하고 스티커를 붙인 종이컵을 이용해 모빌을 만들어주었어요.



안에 뭐가 들었지? 케이크를 넣어봐야지



손잡이가 있네? 들고 다니면 되겠다~



내가 들어가 볼까?



달걀판이네? 무얼 넣어볼까? 종이를 넣어보자!



종이가 떨어졌네? 힘주어 꼭꼭 눌러서 넣어보자~

한지 위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영아들의 모습을 보고 재질, 용도, 크기가 다양한 종이 그릇을 제공하였고 1차 컨설팅 후 여러 영역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구성하였더니 다양한 영역에서 종이컵과 종이그릇을 꺼내어 두드리고, 쌓고, 탐색하는 등의 놀이를 하거나 종이 그릇에 음식을 담고 친구들과 상호작용 하는 소꿉놀이를 확장되기도 하여 반복되는 행동과 언어표현을 관찰하면서 역할놀이, 감각놀이를 이어질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며 지지하였다. 끼적이기 하거나 스티커를 붙인 종이컵, 종이그릇은 소리나는 방울을 달거나 놀잇감을 집어넣어 모빌을 만들어주었고 영아들은 잡아당기거나 흔들기, 잡았다 놓기 등의 신체놀이를 경험 하였다. 담고 넣는 것을 좋아해 종이봉투와 달걀판을 스스로 탐색하고 구성할 수 있는 열린 자료로 제공하였더니 직접 들어가기 시도하거나 열고, 흔드는 등의 종이 봉투 속 공간에 대한 흥미와 신체놀이를 연결되었다.

③ 상자놀이(부모와의 연계)



상자 안에 내 몸이 쏙 들어가네~



상자 모양, 크기가 다르네? 상자를 쌓아보자~ 와르르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돼~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네? 종이 빨대를 넣어보자~ 빨대가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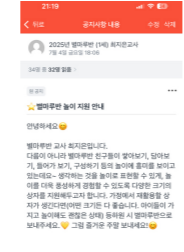


상자를 들어볼까?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④ 상자 미로 터널 놀이

<가정연계 지원>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 지원을 요청드렸고 가정에서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지원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상자 안을 엉금엉금 기어가 보자~ 상자 미로를 따라 나가면 친구 얼굴, 선생님 얼굴이 짝하고 나와~



상자에 몸을 넣고 숨거나 들어가는 등 신체를 활용한 탐색활동에 흥미를 보였고 교사는 가정에서 보내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상자를 활용해 친숙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상자를 반복해서 활용하며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쌓기, 터널, 숨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였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조율하고 동선을 확보해주었다. 영아들은 상자 터널 속을 기어가며 신체조절력과 공간인식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였다.

⑤ 상자 배 놀이(영아주도)

<물리적 지원>

상자에 끈을 달아주어 움직임을 지원하였어요.



상자를 연결했더니 배가 되었네~



좋아하는 인형이랑 같이 타야지~



꽃마루반 동생이 배에 관심을 보이네~ 내가 태워줘야겠다~



친구가 배에 탔네? 내가 밀어줘야겠다~

영아가 상자를 연결해 '배'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역할을 설정하는 상상놀이를 확장됨을 발견 하였고, 영아가 배를 타자 다른 영아가 배를 밀어주며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습에서 협동 놀이의 확장 가능성을 보았다. 교사는 영아의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상자에 끈을 연결해 배 끄는 놀이로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⑥ 상자집에서 놀이하기

<물리적 지원>

다양한 종이테이프 스티커 제공하였어요.



선생님이 상자에 테이프를 붙였네? 나도 붙여봐야지~



창문이 있어~ 창문을 열어서 까꿍!



친구가 왔네~ 여기 앉아~



친구들이랑 같이 누워보자~

⑦ 커다란 모양 상자 놀이하기

<물리적 지원>

커다란 상자에 블록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 모양에 맞는 블록을 넣을 수 있도록 모델링 해주었어요.



상자에 블록을 올려야지~



상자에 구멍이 생겼어~ 모양을 찾아서 넣어봐야지~



상자 밑에 긴 구멍이 있구나? 손을 뻗어서 블록을 빼보자~



상자 속에 들어가 은신처 놀이를 하며 공간 탐색에 흥미를 보였다. 놀이가 지속되도록 종이테이프, 스티커 등의 재료를 함께 제공해 창의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구성하였고, 상자에 창문을 만들면서 상상놀이와 역할놀이를 확장되었다. 이 때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겼다. 상자에 블록을 올리는 것에 흥미를 보여 블록 모양과 똑같은 구멍을 만들어주었더니 영아들은 구멍에 블록을 집어 넣으며 모양과 공간을 탐색하고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키며 놀이를 지속하였다.



교사들이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이 공유를 통해 다양한 연령이 서로의 놀이를 존중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협력하여 놀이를 진행하였다.(0세 꽃마루-여름, 1세 달마루-색깔, 1세 별마루 종이&상자, 2세 해마루-물) 영아들은 낚시 놀이, 배 타기, 물놀이 등의 놀이를 함께 하며 관찰과 모방,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놀이 중에서도 여름 놀이에 대한 높은 흥미를 보여 영아들의 발달에 맞춰 놀이를 유연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환경구성 및 자료제공중심, 공간확장)



교실→테라스,
교실→공동놀이

인적 자원 (관찰, 언어지원, 참여중심)

- 색지 찢기에서 시작된 놀이를 관찰하며 “찌익~”, “소리가 나네?” 등 언어로 감각 탐색을 지원하였다.
- 붙이기, 떼기, 밀기 등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말 걸기와 질문으로 놀이 확장을 유도하였다.
- 종이컵·종이 그릇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놀이의 목적과 역할이 생기도록 언어적으로 확장 하였다.
- “배 같다”는 영아의 상상에 끈을 연결해 역할 놀이로 이어지고 또래 간 협동 경험으로 확장 되었다.
- 형·동생반과의 놀이 공유로 자연스럽게 관계 맺음과 협력을 경험 하도록 지원 하였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종이 찢기나 종이컵 쌓기 등 한 곳에 놀이하여 놀이의 한계가 있었고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종이, 종이컵, 상자 등을 여러 영역에 배치하여 하얏트 음식 놀이감이나, 크레파스, 바구니 등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놀이가 확장 되었다.
교사의 변화	일과를 운영에 있어 영아 연령 특성상 안전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제한하는 것이 많았고 교사 주도로 놀이가 진행되었다.	문제 행동을 발견했을 때 영아의 욕구를 파악하고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놀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영아 주도 놀이로 바뀌었다.
영유아의 변화	놀이에 대한 지속성이 짧고 교사가 하는 놀이에 관심이 많으며 모방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놀이하거나 하고자 하는 놀이가 있음을 표현하고,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기는 즐거움이 커졌다.

